

세계 석유산업의 전망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산업

金 明 培
(極東石油 업무부장)

이 논문은 PEL Pacific Ltd. & Joe Roeber Associates 주관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Asia-Pacific Refining and Trading Opportunities」 관한 Workshop에 참석하여 주제 발표자들의 발표논문 중에서 주요 내용만을 요약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필자 주>

<주제 발표자 명단>

*** Bryan Sanderson**

Chairman, BP South East Asia

*** Dennis O'Brien**

Chief Economist, Caltex Petroleum Corp.

*** Joe Roeber**

Chairman, Joe Roeber Associates

*** Keith Hamm**

Director, PEL Pacific Ltd

*** Graham Duxbury**

Managing Director, PEL Pacific Ltd.

*** Roger Osborne**

Managing Director, Seapac Services Ltd.

I. 세계 석유산업의 전망

1. 80년대 전반

(1) 石油수요 감퇴로 인한 정제시설의 과잉

80년대 전반기의 石油 수요는 73, 74년의 油價상승, 79, 80년의 油價급등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예상 석유 수요증가보다 낮은 수요의 증가를 실현하였으며, 80년대에는 실제로 수요가 감소 하였다(별표 1-1 참조).

石油의 실수요가 예상 석유수요에 미달하여 발생하는 정제시설 과잉의 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 확실해지자 정유산업은 시설용량의 합리화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잉여 정제시설의 폐쇄

-시장의 축소

-극단적인 경우 유럽시장에서의 전면적인 철수

기존의 석유회사들은 Arabian-Gulf와 아프리카에서의 原油지분을 잃었으며, 석유생산의 주도권을 그 지역 정부에 모두 양도하게 됨에 따라 종전 그들의 원유 처리를 위한 하류부문의 대규모적인 설비가 불필요하게 되어 더욱 시설 축소의 압력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나 기존의 석유회사들의 이러한 시설 축소도 수요 감소에 의한 수급균형의 회복에는 미흡하였으며, 설사 그들이 시장에서 철수한 경우에도 정유시설은 다른 석유회

사가 매입하여 계속 가동하였던 것이다.

(2) 석유제품 교역의 중요성 불변

정제시설의 과잉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의 수입량은 여전히 석유제품 공급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석유회사들은 原油 투입의 극소화를 선호하여 제품 재고의 큰 증가가 없는 수준에서의 원유 투입량을 결정하여, 예상하지 못한 제품 수요에 대하여는 수입 석유제품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다음의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다.

- 재고의 감축을 통한 비용의 감소

- 실제 정제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 석유제품의 경쟁력 이중 후자의 요인은 OPEC가 원유가격 수준 유지를 위하여 原油생산량 감축을 계획함에 따라서 최근 더욱 현실성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 요인으로 인하여 상류부문에서의 경쟁을 완화하고, 하류부문의 과잉 정제시설의 충격을 Concentrate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분해설비의 증가

단순 증류능력의 감소와 함께 분해시설 용량은 증가하였다(별표1-2 참조).

이러한 분해시설 용량의 증가는 中質 및 輕質 제품의 수요 증가에 의한 공급 부족분을 투입원유의 증가없이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근년에 輕質 및 중질유에 대한 큰 수요증가는 없었으며, 증가된 분해시설은 원유투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수준의 중·경질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석유회사들은 분해시설의 이용으로 重質油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왔으며, 원유의 투입 대신에 잔사유의 투입으로 경질유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최저 原油 투입량 정책 의지를 의한 분해시설의 이용은 분해시설 과잉의 해소와 동시에 시설 투자비의 회수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이윤을 보장할 것이다.

2. 중기 전망(85-90)

(1) Working Case

이경우 중기에 있어 정유부문에서의 중대한 변동이 있

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을 촉진하는 중요요인으로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 Offtakers에 대한 산유국의 판매경쟁

- 85-90년간의 약 500mb/d의 石油수요 증가(공산국 제외)

- R. F. O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증가(고유가 Case대비) Offtaker의 확보 경쟁으로 산유국들은 그들의 原油 판매 이윤의 일부를 구매자들에게 배분할 것이다.

Working Case에서 예기된 石油 수요 수준이 조기에 실현된다면 원유정제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정유시설 합리화 과정은 일부 지역에서 지연될 것이고, 더 나아가 어느정도의 시설 확장도 예상된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 5년간 한계비용만을 겨우 커버해오던 석유산업은 정유부문에서 상당히 개선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기에서의 제품수요의 전망은 R. F. O에 대한 수요 감소추세는 더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분해시설의 추가설치도 거의 없을 것이며, 분해시설에서 얻을 수 있는 높은 이윤도 없어지며, R.F.O와 Distillate의 가격차는 점점 좁혀질 것이다.

(2) 高油價의 경우

고유가의 경우 Working Case에서 정유 환경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던 세가지 중요 요인은 의미가 없어지며, 다음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 산유국간의 효과적인 판매경쟁 제한

- 세계 석유 수요증가의 정체

- R. F. O 수요절감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류부문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정유부문의 전체적인 이윤감소가 있을 것이나, R. F. O와 Distillate의 가격차가 심화됨으로 인하여 분해시설의 가동에 의해서는 큰 이윤의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즉, 86년초의 원유가격 붕괴 이전의 상황과 같아지는 것이다.

석유제품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할 것이며, 이러한 추세가 세계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더욱 세분화되고, 엄격한 품질 규격의 요구는 어쩔 수 없는 투자를 강요할 것이며, 이러한 의무와도 같은 투자의 필요성은 기업가의 선택범위를 한층 좁게 할 것이다(별표

1-3 참조).

3. 장기전망(90-95)

90년대 초반에는 앞에서 본 두 케이스의 차이가 모호해진다.

Working Case의 경우 石油 수요증가에 따른 원유 증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고유가 Case의 경우에도 시설의 노후화 및 고급 석유제품의 수요등으로 인하여 역시 투자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Working Case의 경우에도 R. F. O가 타에너지에 대체됨으로써 수요의 경질화가 요구될 것이며,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설비투자가 더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중기와 장기에서의 Working Case와 高油價 케이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실제 투자가 요구될 것이며, 정유산업의 궁극적인 문제는 소요 자금의 획득 방법이 될 것이다(별표 1-4 참조).

II.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적·정치적 사업환경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정치적 환경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향후 80년대말 또는 90년대 중반까지 세계의 여타지역을 앞지르는 경제성장을 계속할 것이나, 아시아 국가 모두가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韓國과 臺灣은 고성장을 지속하겠으나, 싱가포르나 필리핀은 경제의 회복기에 들어서며 높지 않은 경제성장을 보일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전지역의 실제 GDP는 86년도의 3.7%에서 87년도에는 3.9%로 작은 폭의 성장을 보일 것이나, 이 성장에는 日本의 역할이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NICs(신흥공업국,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는 수출의 부진으로 약 2% 정도의 성장을 둔화를 가져올 것이다. 86년도에 NICs는 해외시장에서 日本상품에 대한 경쟁력의 제고로 많은 혜택을 입었던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제회복 및 泰國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공업지향적인 저개발국(commodity producing LDCs)은 86년도 성장률 0.7%의 2배이상인 약 2.1%의 성장을 87년에 이룩할 것이다(별표 2-1 참조).

美國 양원에서의 민주당의 득세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큰 위협으로 등장할 것이다.

신흥공업국 4개국(韓國, 臺灣, 싱가포르, 홍콩)의 수출은 60년대에 세계수출의 2%에도 미달하였으나, 87년에는 6.5%에 달할 것이며, 그중 2/5는 美國시장이 차지할 것이다.

이들 신흥공업국 4개국의 80년부터의 총 수출증가액 560억 달러중 54%인 300억달러가 美國시장에서 이루어 졌다(별표 2-2 참조).

86년도에 이들 신흥공업국 4개국으로 부터 美國이 수입한 총 CIF 금액은 약 500억달러이며, 이는 美國 총 수입의 13%로 프랑스, 獨逸, 英國으로 부터의 수입액과 거의 대등하다.

아시아 신흥공업국도 80년대 초부터 美國의 수출량이 증대한 몇 안되는 LDCs에 속한다. 그럼에도 신흥공업국으로의 수출은 美國 총수출의 9%만을 차지할 뿐이다. 따라서 美國이 작년에 기록한 총 1,700억달러의 무역적자의 약 1/5는 신흥공업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것이다(별표 2-3 참조).

따라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도 美國의 무역적자 감소 논의에서 특별한 초점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흥공업국 4국은 美國뿐 아니라, EEC와도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韓國과 臺灣은 주요 교역국과도 무역흑자를 이루고 있는 점이 홍콩과 싱가포르가 美國 이외의 국가들과는 무역적자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별표 2-4 참조).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그들 정부의 수출 주도 성장 정책에 의한 국제무역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실제 GDP는 내수위주 정책을 채택한 여타 국가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성장하였다(별표 2-5 참조).

아시아 지역의 경제환경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상대적 고성장
- 그러나 韓國, 臺灣,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의 성장을 둔화
- 신흥공업국의 시장규모의 활발한 확대
-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타격
- 외채의 억제문제

2.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망

- 석유제품 수요의 최저 2% 증가
- 重質 및 輕質제품 수요가 R. F. O보다 급속히 증가

-현제의 투자계획으로 90년대말까지는 지탱할 것이나, 그 이후의 기간에는 추가 투자가 없는 한 중질제품의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제품의 과대공급으로 인한 원유처리량이 감소될 것이며, 그 효과는 특히 수출용 정유공장에 가장 크게 미칠 것이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정유시설에의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품 수입으로 수요를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90년대초까지는 시설과잉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90년대초까지는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어 낮은 마진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의 제품 생산량, 가격, 마진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계속될 것이나, 가격 체계는 주요 생산자들과 시장 지배자들의 행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Ⅲ. 아시아·태평양지역 석유정제의 전망과 수요의 불확실성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일반화가 쉽지 않으나,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표 3참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GDP, 인구, GDP/Capita는 지난 10년간 세계 평균을 상회해 왔으며, 향후에도 여기에 변동 사항이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별표 3-1 참조)

이 지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石油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석유수요의 증가는 석유화학, 수송, 농업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重質제품의 수요는 타 연료의 대체로 인하여 점감하여 왔으나, 연료유 수요의 감소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총 수요의 증가를 상쇄하기에 충분하였다(별표 3-2 참조).

향후 10년이상 石油 수요가 계속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한 지표는 없으나, 또한 연료유 수요가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리라고 불만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별표 3-3).

그것은 이지역 경제의 구조적 성격과 정부의 뿌리깊은 脫石油 정책에 기인한다. 국제 석유가격이 예상외의 변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세는 별로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石油수요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정유

업계의 하부구조는 현재의 투자상황으로 보아 어느정도 잘 정의될 수 있다.

정유업계에의 투자도 역시 정유업이 속한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 그들의 과거의 경험이며, 미래에 대한 예상의 결과인 것이다. 투자의 결정에 정부가 많은 통제를 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금의 획득 가능성이 또다른 중요한 요소가 된다.

70년대 말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급속한 石油수요증가는 정유시설에의 투자를 촉진하여 80년대 중반까지의 시설용량의 지속적 증가를 실현하였다. 당시의 예상은 이 시설의 증가분을 모두 유효하게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石油수요의 증가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가동률이 저하되었다(별표 3-4).

왜냐하면 86년도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기 까지 지난 수년간은 負의 마진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경우라도 극히 저조한 이익률을 보였기 때문이다(별표 3-5참조).

따라서 정유산업에의 투자는 거의 정지되었고, 日本에서는 정제시설 폐쇄계획까지 수립하였다.

85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제시설 능력은 40만 b/d정도 감소되었다(별표 3-6 참조).

정제시설의 감축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石油교역의 움직임은 일본의 행동에 따라 고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90년까지의 100만b/d감축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제품공급 시장은 매우 경직될 것이다(별표 3-7 참조).

이 지역에서의 분해시설 용량의 증가도 매우 중요한 측면을 이룬다. 70년대의 증류시설에 대한 투자와 같이 80년대에도 분해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향후 수년간 추가적인 투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시설 용량을 가진 지역이 될 것이다(별표 3-8 참조).

이 분해시설은 重質유분을 생산하는 수소화 분해보다 촉매 분해시설에 더 역점이 두어졌었다(별표 3-9 참조).

정유산업이 직면한 더 중대한 문제는 無鉛휘발유 및 저유황유등의 생산으로 이는 환경문제를 의식한 정부의 요구와 석유회사의 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들로 보아 이 지역에는 추가적인 정유업에의 투자 요구가 잠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류시설 투자가 그 불리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의 유리

점을 분해시설 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는 다음의 몇가지 요인에 의하여 그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 다가오는 수급균형에 대한 정제업자의 인식
- 정부통제가 심한 지역에서의 정부의 태도
- 장래 원유가와 제품가격의 관계 및 제품 수입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 자금의 획득사용 가능성
 석유회사의 과거 경험으로 그들은 과잉 투자의 위험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석유제품 교역을 위한 환경이 점차로 조성될 것이다.

IV. 맺는 말

세계의 石油수요의 증가율은 높지 않을 것이나, 장기적

으로는 정제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가 요구된다. 정제시설에의 투자는 석유 품질의 고급화 추세를 반영하여 분해시설에 대한 투자가 세계적인 추세로 될 것이며, 단순정제시설에의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原油투입 극소화 정책의 지속으로 인하여 석유제품 국제거래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산업도 세계적인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에 의하여 석유수요는 타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통제가 석유산업 구조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별표 - 1〉 세계석유수급추이

〈단위 : 백만B/D〉

	실 적		작성년도별 1990년 전망			
	1982	1985	1983 / 4	1984 / 5	1986 (高油價)	1986 (低油價)
정 제 능 력	65.1	58.1	63.7	57.7	57.9	57.9
생 산 량	55.5	49.4	54.1	49.0	49.1	49.1
기 타 공 급 량	7.3	5.7	6.4	5.9	6.3	6.1
共 産 圏 純 수 출 량	1.0	1.0	1.0	1.0	1.0	1.0
공 급 량	63.8	56.1	61.5	55.9	56.4	56.2
석 유 소 비 량	46.3	46.5	47.4	47.2	49.3	52.0
과 부 족	17.5	9.6	14.1	8.7	7.1	4.2
原 油 가 격 (\$/B)	32	28	30	29	20	15

〈별표 1 - 2〉 분해설비능력 추이

〈단위 : 천B/D〉

	접촉분해			수소회분해			비스브레킹·열분해			코 킹		
	1980	1985	1990	1980	1985	1990	1980	1985	1990	1980	1985	1990
OECD												
美 國	5,239	4,928	4,921	833	1,031	1,038	462	402	402	920	1,298	1,332
캐 나 다	478	419	419	80	137	137	42	57	57	16	16	16
西 歐	1,148	1,688	1,705	115	198	282	868	1,396	1,460	152	182	204
日 本	339	487	469	9	44	38	40	60	60	20	20	20
濠洲및뉴질란드	165	174	174	-	-	25	-	-	-	-	-	-
소 계	7,369	7,696	7,688	1,037	1,410	1,520	1,412	1,915	1,979	1,108	1,516	1,572

	접촉분해			수소화분해			비스브레킹·열분해			교 킱		
	1980	1985	1990	1980	1985	1990	1980	1985	1990	1980	1985	1990
任加工 국가 ¹⁾												
中 東	80	109	185	234	366	434	121	191	191	-	-	53
아 프 리 카	-	-	-	-	-	-	-	-	-	-	-	12
極 東	20	20	20	16	153	163	93	230	230	-	32	32
西 半 歐	145	257	257	-	-	-	357	219	219	-	45	45
소 계	245	386	462	250	519	597	571	640	640	-	77	142
기 타												
中 東	26	29	29	4	4	11	46	97	97	17	17	17
아 프 리 카	137	134	134	16	36	41	74	74	74	-	20	20
極 東	66	178	178	18	24	65	86	142	152	18	40	78
西 半 歐	811	887	989	53	81	81	200	219	292	23	89	140
소 계	1,040	1,228	1,330	91	145	198	406	532	615	58	166	255
세계총계 ²⁾	8,654	9,310	9,480	1,378	2,074	2,315	2,389	3,087	3,234	1,166	1,759	1,969

<주> 1) 바레인,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중립지대, 오만, 카타르, 사우디, 南예멘, U. A. E., 알제리아, 리비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바하마, 네덜란드령, 트리니다드, 베네수엘라, 버진군도

<주> 2) 공산권 제외

<별표 1 - 3> 세계 석유제품 수급전망(1990)

(단위 : 백만B/D)

	低油價케이스			高油價케이스		
	총공급량 ¹⁾	총수요량	과 부 족	총공급량	총수요량	과 부 족
美 國	16.1	17.4	(1.3)	16.4	16.1	0.3
西 歐	13.4	13.0	0.4	13.4	12.1	1.3
日 本	4.0	5.0	(1.0)	4.0	4.7	(0.7)
기 타 ²⁾	2.8	2.4	0.4	2.9	2.3	0.6
計	36.3	37.8	(1.5)	36.7	35.2	1.5
中 東	5.3	2.9	2.4	5.1	2.9	2.2
아 프 리 카	2.4	2.2	0.2	2.4	2.2	0.2
極 東	4.5	4.0	0.5	4.5	3.9	0.6
西 半 歐	6.7	5.1	1.6	6.7	5.1	1.6
非OECD 計	18.9	14.2	4.7	18.7	14.1	4.6
세 계 計 ³⁾	55.2	52.0	3.2	55.4	49.3	6.1

<주> 1) 정제시설능력의 최대가동시 생산량과 天然가스 처리공장으로부터의 LPG, 精製増分, 生燒原油 및 기타 투입액 등

2) 캐나다, 濠洲, 뉴질랜드

3) 공산권 제외

〈별표 1 - 4〉 세계 석유제품 수급전망(1995)

〈단위 : 백만B/D〉

	低油價케이스			高油價케이스		
	총공급량 ¹⁾	총수요량	과부족	총공급량	총수요량	과부족
美 國	16.4	17.4	(1.0)	16.4	15.7	0.7
西 歐	13.4	13.1	0.3	13.4	11.9	1.5
日 本 ²⁾	4.0	5.2	(1.2)	4.0	4.7	(0.7)
기 타	2.8	2.4	0.4	2.9	2.2	0.7
計	36.6	38.1	(1.5)	36.7	34.5	2.2
中 東	5.4	3.4	2.0	5.2	3.4	1.8
아 프 리 카	2.4	2.8	(0.4)	2.4	2.7	(0.3)
極 東	4.5	4.9	(0.4)	4.5	4.4	0.1
西 半 歐	6.7	6.0	0.7	6.7	5.8	0.9
非OECD 計	19.0	17.1	1.9	18.8	16.3	2.5
세 계 計 ³⁾	55.6	55.2	0.4	55.5	50.8	4.7

〈주〉 1) 정제시설능력의 최대가동시 생산량과 천연가스 처리공장으로 부더의 LPG, 精製増分, 生燒原油 및 기타 투입액 등

2) 캐나다, 濠洲,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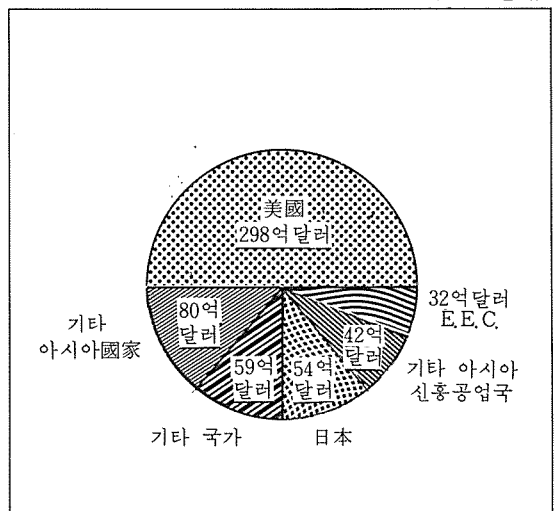
3) 공산권 제외

〈별표 2 - 2〉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수출증가액 1980 - 86

〈별표 2 - 1〉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

	10억달러 실질GDP성장률			
	1985	1985	1986	1987
日 本	1,332	4.5	2.0	3.0
中 共	238	12.0	7.3	7.0
印 度	195	4.4	4.1	4.4
濠 洲	154	4.5	1.8	1.7
韓 國	83.4	5.1	9.5	7.0
인도네시아	80.8	1.9	-1.1	0.0
台 湾	59.1	4.4	8.7	6.5
泰 國	38.6	4.0	4.6	5.1
홍 콩	34.1	0.8	5.1	5.4
필 리 핀	32.7	-3.8	-0.1	2.7
말레이시아	31.7	-1.0	0.6	1.8
싱 가 포 르	17.6	-1.8	0.4	2.8

(565억달러)



〈별표 2-3〉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수출입실적

(단위: 십억달러)

	1980	1985	1986 (추정)
수출(FOB기준)	76.4	114.0	131.2
美 國	19.0	39.6	49.1
(비중·%)	(24.9)	(34.7)	(37.4)
日 本	7.7	11.4	13.1
(비중·%)	(10.1)	(10.0)	(10.0)
E E C	12.7	12.3	17.3
(비중·%)	(16.6)	(10.8)	(13.2)
수입(CIF기준)	88.5	107.2	116.1
美 國	15.6	18.0	18.8
(비중·%)	(17.6)	(16.8)	(16.2)
日 本	20.7	24.5	30.9
(비중·%)	(23.4)	(22.9)	(26.6)
E E C	8.8	11.5	14.1
(비중·%)	(9.9)	(10.7)	(12.2)
무역수지	-12.1	6.8	15.1
美 國	3.4	21.6	30.3
日 本	-13.0	-13.1	-17.8
E E C	3.9	0.8	3.2
기 타 국	-6.4	-2.5	-0.6
경 상 수 지	-9.0	12.2	22.3

●싱가포르

(단위: 십억달러)

	1980	1985	1986 (추정)
수출(FOB기준)	19.4	22.8	22.0
수입(CIF기준)	24.0	26.3	25.3
무역수지	-4.6	-3.5	-3.3
美 國	-0.9	0.8	1.3
日 本	-2.7	-2.3	-3.1
E E C	-0.1	-0.5	-0.1
기 타 국	-0.9	-1.5	-1.4
경 상 수 지	-1.5	-0.3	0.2

●韓 國

(단위: 십억달러)

	1980	1985	1986 (추정)
수출(FOB기준)	17.5	30.3	35.8
수입(CIF기준)	22.3	31.1	32.3
무역수지	-4.8	-0.9	3.5
美 國	-0.3	4.3	7.5
日 本	-2.8	-3.0	-5.8
E E C	1.2	0.2	0.6
기 타 국	-2.9	-2.4	1.2
경 상 수 지	-5.3	-0.9	4.7

〈별표 2-4〉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연도별 수출입실적

●홍 콩

(단위: 십억달러)

	1980	1985	1986 (추정)
수출(FOB기준)	19.7	30.2	34.5
수입(CIF기준)	22.4	29.7	34.9
무역수지	-2.7	0.5	-0.4
美 國	2.5	6.5	8.1
日 本	-4.2	-5.6	-5.5
E E C	1.8	0.3	1.1
기 타 국	-2.8	-0.7	-4.1
경 상 수 지	-1.3	4.2	2.4

●台 灣

(단위: 10억달러)

	1980	1985	1986 (추정)
수출(FOB기준)	19.8	30.7	38.8
수입(CIF기준)	19.8	20.1	23.6
무역수지	0.0	10.6	15.2
美 國	2.1	10.0	13.4
日 本	-3.2	-2.1	-3.4
E E C	0.9	1.0	1.6
기 타 국	0.2	1.7	3.6
경 상 수 지	-0.9	9.2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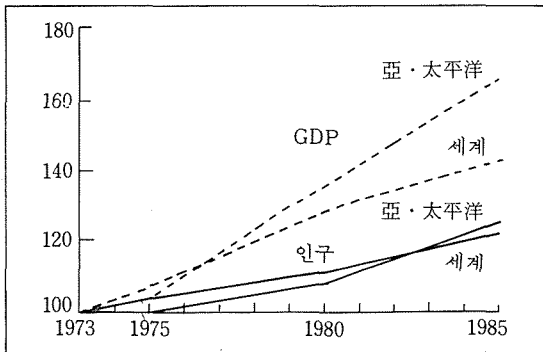
〈별표 2-5〉 아시아 신흥공업국 및 開途國의 경제성장 및 수출입증가율 비교

	연평균증가율 1976-1986		1인당GDP 1986년 (달러)
	실질GDP	수출	
홍콩	8.6	8.4	6,620
韓國	7.2	13.5	2,140
싱가포르	6.5	8.3	6,560
台灣	8.0	13.2	3,230
인도네시아	5.5	3.0	450
말레이시아	5.9	6.1	1,800
필리핀	2.4	6.2	540
泰國	6.2	12.0	810
아르헨티나	0.4	9.0	2,290
브라질	3.4	12.8	1,730
칠레	4.6	7.7	1,840
멕시코	3.7	6.6	1,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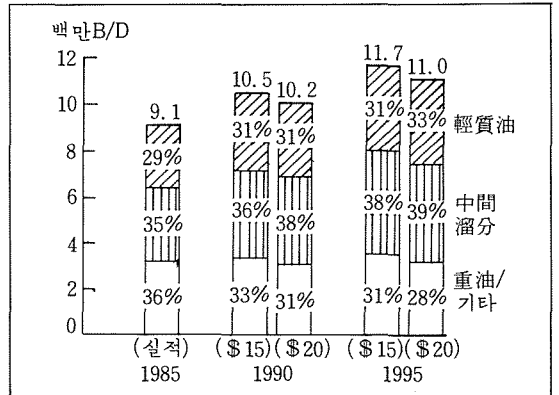
〈별표 3〉 亞·太平洋지역의 범위

● 東南亞	● 極 東
인도네시아	日 本
말레이시아	韓 國
필리핀	台 灣
싱가포르	홍 콩
泰國	中 共
브루나이	
버마	
● 南亞	● 南洋洲
印度	濠 洲
파키스탄	뉴질랜드
스리랑카	太平洋群島
방글라데쉬	● 美西海岸
네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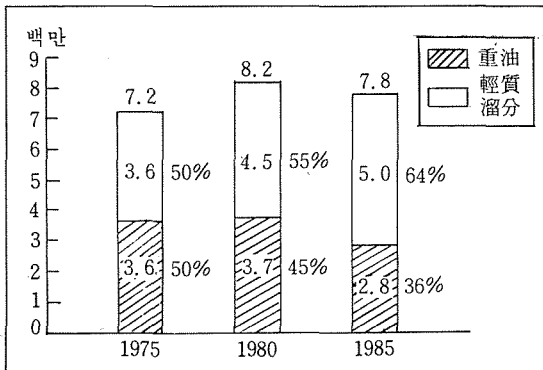
〈별표 3-1〉 亞·太平洋 및 세계의 GDP 인구증가추이(1973-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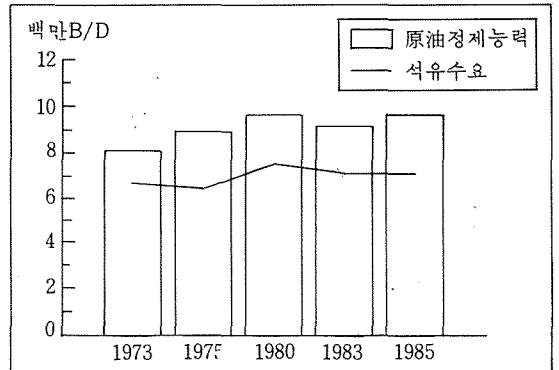
〈별표 3-3〉 亞·太平洋지역의 석유제품 수요전망(1985-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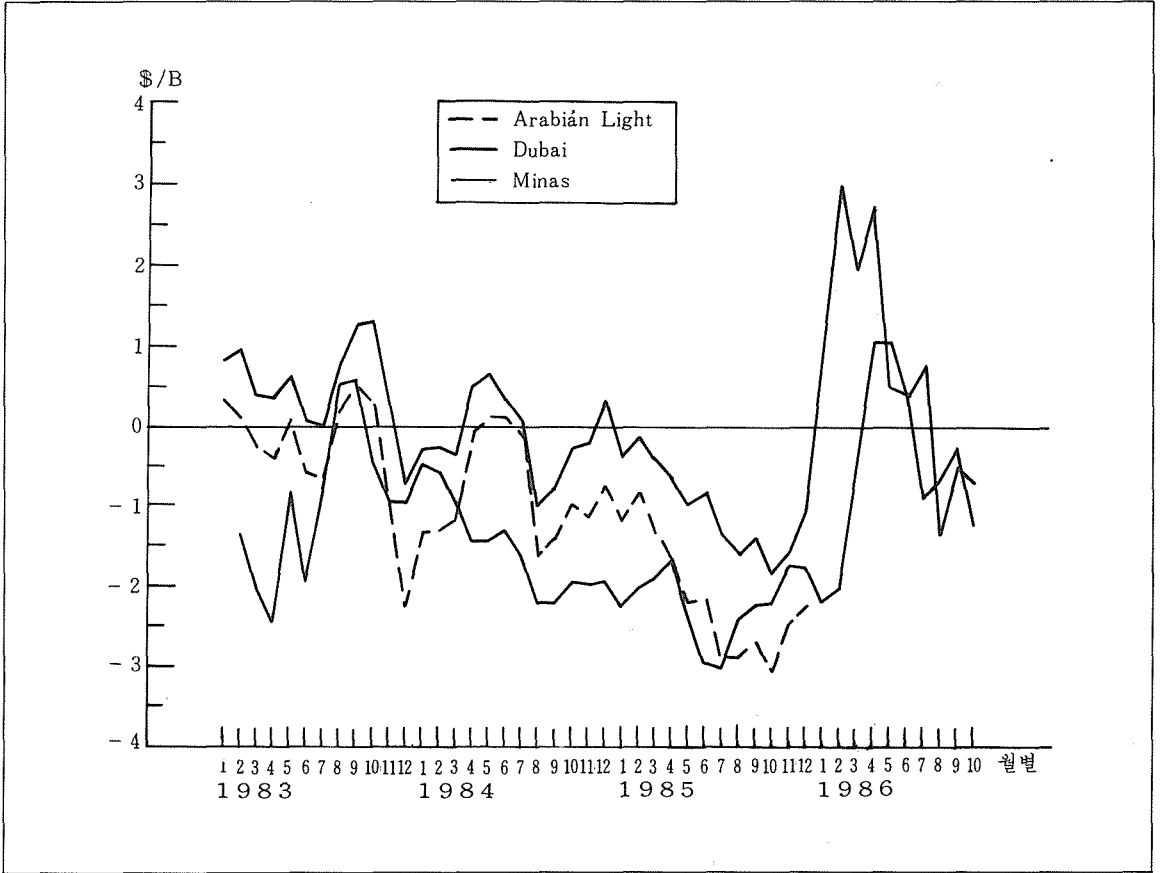
〈별표 3-2〉 亞·太平洋지역의 수요구조 변화(1975-1985)



〈별표 3-4〉 亞·太平洋지역의 정제능력과 석유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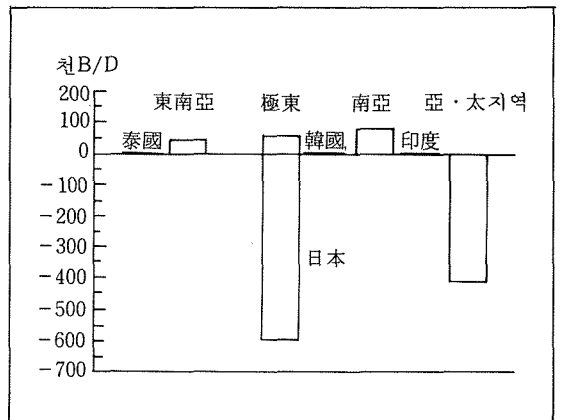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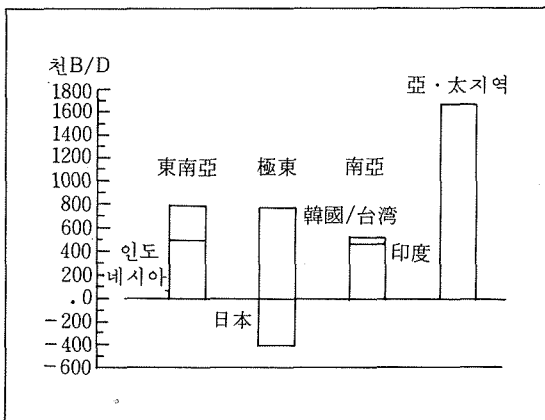


〈별표 3-5〉 정제마진
(싱가포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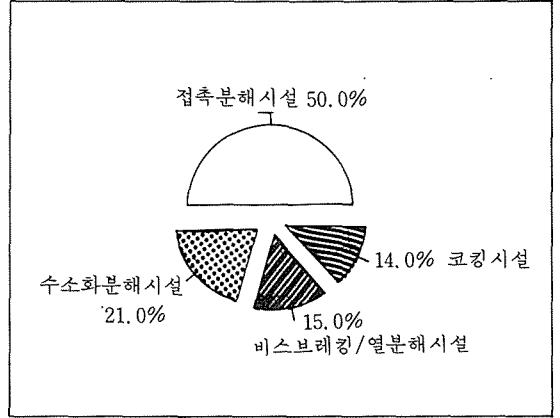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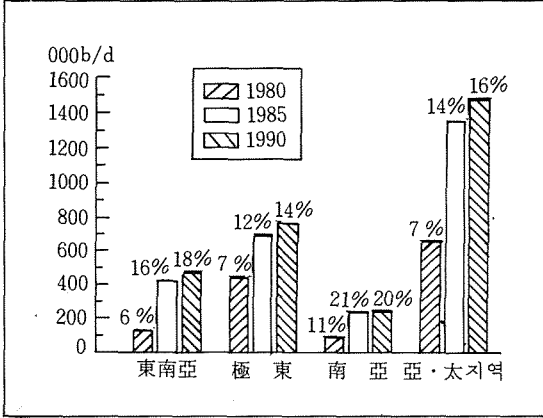
〈별표 3-6〉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제능력추이(1973-85)

〈별표 3-7〉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제능력 증가 전망(1985-1990)



〈별표 3 - 8〉 亞·太平洋지역의
 分解설비전망(1985 - 1990)

〈별표 3 - 9〉 설비형태별 亞·太지역의
 分解시설능력(1985)



□ 부부십계명 □

남편과 아내의 십계명

아내의 십계명

- ① 자기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재치와 근면성을 길러라.
- ② 음식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남편의 식성에 유의하라. 식탁은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대화를 나누는 친교의 광장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꿈꾸는 희망의 산실이다.
- ③ 혼자만 말하지 말라.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 부부가 충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 ④ 남들 앞에서 남편의 결점을 늘어 놓거나 지나친 자랑을 하지 말라.
- ⑤ 남편에게 따져야 할 말이 있을 때는 그의 기분상태를 참작하라.
- ⑥ 남편에게는 혼자만의 정신적 휴식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음에 잊지 말라.
- ⑦ 중요한 집안 일을 결정할 때는 남편의 뜻에 따르라.
- ⑧ 남편의 수입에 맞춰 절도있는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하라.
- ⑨ 모든 일에 참을성을 가져라.
- ⑩ 하루에 두번 이상 남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지적해 줌으로써 남편이 기쁨과 긍지를 갖도록 하라.

남편의 십계명

- ①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이 계속 변치 않도록 노력하라.
- ② 결혼 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잊지 말라.
- ③ 평소 아내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보여라. 남편은 아내의 사랑스러움을 가꾸는 정원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④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아내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라.
- ⑤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라. 결혼의 행복이란 부분간의 사랑보다도 평소에 부부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가에 달려 있다.
- ⑥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라.
- ⑦ 가정불화가 있을 때 남편은 한 걸음 아내에게 양보하라. 아내의 매력은 사랑스러움이라면 남편의 매력은 너그러움이다.
- ⑧ 가정경제는 아내에게 일임하여 아내가 보람을 갖게 하라.
- ⑨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주고 키워주도록 하라.
- ⑩ 하루에 두번 이상 아내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즉시 일러줌으로써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습관을 길러라.
 (이 글은 명동성당에서 高미태오신부가 특강한 내용이다.)